

제주 전통초가 새끼줄 잇기 및 집줄 놓기 시연

- ◎ 일시 : 21.04.26.(월)~21.04.30.(금)
09:00~17:00 ※ 우천시 미운영
- ◎ 장소 : 돌문화공원 돌한마을 입구 (3코스)
(항아리 전시장)



- ◎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시연 관람 진행
- ◎ 체험행사 : 1시간당 10인 이내 현장 접수
- ◎ 문의 : 064-710-7732

제주의 전통초가 보수(지붕 잇기)

제주 전통초가의 지붕잇기는 '집줄놓기'부터 '지붕을 이는 것'까지 모두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맞서 온 제주인의 지혜와 정신을 엿을 수 있는 전통 풍습입니다.

◆ '전통초가'

◇ 고대부터 근대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제주도민의 거주 형태로 제주의 전통초가는 돌과 흙, 새(띠), 나무 등 단순한 재료를 조합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지닌다.

◆ '제주 전통초가의 지붕잇기'

◇ 제주의 세시풍속 중 하나

◇ 1년에 한번 씩 한 해동안 비바람에 해진 묵은 지붕의 띠를 걷어 내고 지난가을에 베어다 잘 말린 새(제주에서 나는 띠)를 베어다 덮고 띠로 엮어 만든 집줄을 바둑판 모양으로 단단히 엮어매어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새단장을 함.

◇ 한라산 기슭 초원지대에서 자생하는 자연 재료 새(띠)를 주재료로 한다.

◆ '집줄'

◇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 제주초가 지붕을 엮어매어 고정시키는 줄로, 외줄을 만든 뒤 두개의 외줄을 하나로 어울려 집줄을 만든다. 초가지붕에 새를 덮은 위에 격자형(바둑판 무늬)으로 줄을 엮어 매는데 사용.

◆ '집줄놓기'

◇ 초가지붕을 잇기 위해 새끼줄을 꼬아 만드는 것